

있었으나, 점차 매장량(埋葬量)이 고갈(枯渴)되면서 폐광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16세대가 거주하며 다양한 성씨가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운무터(雲霧 터)

태백산(太白山) 주맥(主脈)의 고산지대(高山地帶)며 늘 안개가 끼는 곳으로 고랭지 채소와 약초 재배의 적지다. 한때는 씨감자 생산지로 선정되어 군내에 씨감자를 공급하였다.

제9절 왕피1리(王避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왕피2리, 서쪽은 쌍전1리, 광회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산이 중첩되어 있고, 대령산(大嶺山)이 멀리 바라보이며, 영양군 수비면(首比面)과 접하고 있다. 북쪽은 통고산(通古山) 지맥(支脈)인 박달재를 넘어 12km 거리에 금강송면(西面) 소재지(所在地)가 있다. 또한 영양군(英陽郡)에서 발원(發源)한 왕피천(王避川)이 마을 중앙으로 흐르고 있으며, 왕피1리 지역이 넓어 자연부락 간의 거리가 8km나 되는 곳도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한농복구회가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왕피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다.

2. 마을의 역사

마을 이름을 왕피리(王避里)라 부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로 935년경에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왕자(王子)인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손씨(孫氏) 모후(母后)와 함께 이곳으로 피신(避身) 왔다가 모후(母后)가 이곳에서 별세(別世)하고 왕자(王子)는 금강산으로 갔다는 설(說)이 있다. 둘째로 1361년 원(元)나라 말엽에 한산동(韓山童) 두목(頭目) 이이조의 홍건적(紅巾賊)은 결빙기(結氷期)를 이용하여 남침(南侵)하므로, 고려 31대 공민왕

이 이곳으로 피신하였다는 설이 있다.

1) 갈전(葛田)

1700년대에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칩녕쿨을 건너내고 밭을 일구었다 하여 갈전(葛田)이라 불렀으며, 10세대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나 험준한 통고산을 사이에 두고 면 소재지까지는 16km나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여 모두 떠났다. 그 후 1994년 12월에 가까운 영양군 수비면(首比面)으로 편입되었다.

2) 거리고(巨里庫)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처음으로 이곳에 살았다 하며, 공민왕이 피신 당시 군량(軍糧)과 군수품(軍需品)의 창고(倉庫)가 있던 곳이라 하여 거리고(巨里庫)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부락에는 김녕 김씨(金寧金氏) 후손인 원주민(原住民)이 3세대뿐이고 1994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한농복구회(韓農復舊會) 회원이 공동체(共同體) 생활을 하고 있다. 거리고(巨里庫) 마을 입구에 있는 “꽃등”에는 한농복구회원(韓農復舊會員)의 집회 장소인 종교시설이 있다.



<그림 7> 거리고

3) 동수골(東水谷)

통고산(通古山) 기슭에 있는 마을로 냇물이 정서(正西)에서 정동(正東)으로 흐른다고 하여 동수골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원주민이 2세대뿐이며 한농복구회(韓農復舊會) 회원이 대부분이다.

4) 장재터(藏財基)

조선 말엽에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치부(致富)한 곳이라는 설(說) 또는 풍수설(風水說)에 부자가 나타날 곳이라 하여 장재터(藏財基)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제(日帝)강점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광물인 주석(朱錫), 동(銅), 석면(石綿)이 발견되었다.

전쟁물자가 부족하던 일제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금정광업주식회사(金井鑛業株式會社)에서 보국대(補國隊)란 이름으로 한인노동자(韓人勞動者)를 강제동원하여 채광(採鑛)하였고, 면소재지까지 15km의 거리를 인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1940년대 전쟁말기에는 목탄차(木炭車)를 운행하여 광물(鑛物)을 운반하였으며, 매일 동원되는 인력으로도 광물을 운반하였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는 민영(民營)의 장재광업소(藏財鑛業所)에서 주석광(朱錫鑛)을 개발하여 한때는 전국의 광산노동자들이 모여들어 400여 명이나 되었으며, 매월 수십 톤씩 광물이 생산되면서 갑자기 광산판자촌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해 왕피초등학교(王避初等學校) 동수곡분교(東水谷分校)가 신축되고, 1974년 전성기에는 학생 수가 75명에 이르렀으나 광산이 폐광된 후인 1993년에 동수곡분교는 폐교되었다.

5) 한천(寒川)[일명: 햇내]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개척(開拓)하였다고 하며, 공민왕(恭愍王)이 환도(還都) 길에 내(川)를 건너면서 눈 녹은 물이 몹시 차다 하여 한천(寒川)이라 불렀다 한다. 그리하여 남향의 양지마을을 양지햇내(陽寒川), 북향의 음지마을을 음지햇내(陰寒川)라 부른다. 그리고 양지햇내(陽寒川)에는 한농복구회원이 72세대[185명]가 있고 음지햇내(陰寒川)에는 42세대[114명]가 있으며 원주민은 5세대뿐이다. 또한 음지햇내(陰寒川)에서 생산되는 씨마늘은 우량 씨앗으로 평가받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7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박달재

이 재는 왕피리(王避里)에서 삼근리로 가는 높고 험한 재(嶺)로 많은 전설이 깃들여 있다.